



이젠 보기 힘든 놀이가 되어버린 '말뚝박기'



나주 금성산을 둘러보다 말뚝박기를 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앞사람 가방이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상대편 아이들을 노려보다가 험하게 굴려 뛰어가 '부웅' 날아 '꽝' 앓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 못한다고 육먹으면서도 힘안드는 마부를 서로 하겠다고 다투기도 했죠.

말뚝박기 뿐입니다. '팡파리기', '자치기', '비사 치기', '구슬치기' 등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해질 녁 이름을 불러대며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놀이가 됐습니다.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날마다 모였던 아이들이 이젠 없습니다.

공터에 들어선 아파트, 주차된 자동차로 빽빽한 골목길, 축구하기도 비좁은 학교 운동장 때문일까요.

설령 놀이터가 생긴다고 태권도·피아노·미술·수학·영어 학원을 줄이어 쓰아 다니는 아이들이 돌아올까요.

씁쓸하면서도 기성세대들의 옛 추억거리가 아직 남아있는 자체가 반가울 뿐입니다. /나명주기자 mjna@

뉴스퀴즈 61·62회 김양선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61·62회 뉴스퀴즈 추첨 결과, 김 양선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김씨는 7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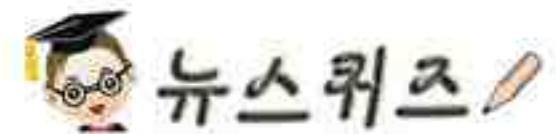
61·62회 뉴스퀴즈에는 앱 서와 편지로 316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업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백금열 경장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김양선·장흥군 장흥읍

2등 ▲김영희·나주시 송월동



63. 광주제일고가 지난 3일 제 41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 전국 대회 통산 20번째 우승의 금지탑을 세웠습니다.

지난 1923년 창단된 광주제일고 야구부는 80~90년대 들어 전국 대회에서만 11개의 우승기를 훨슬며 한국 야구의 명문고로 자기매김했습니다.

광주제일고를 나와 국내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에 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광주제일고 출신이 아닌 야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찬호 ② 김병현 ③ 최희섭 ④ 이종범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답장자 앞 우편번호 501-711



■보이긴 뭐가 보여?

한 여자가 초 미니스커트를 입고 외출을 하자 한 능글맞은 사내가 슬금슬금 여자의 뒤를 헤쳤다.

그녀가 막 육교 위로 올라가는데, 뒤따르던 사내가 약을 놀렸다.

"팬티 보인다, 팬티 보인다"

그러나 여자는 사내의 말을 무시한 채 그냥 육교로 올라섰다.

사내는 그녀가 육교 중간쯤에 올라갔을 때 또 한번 "팬티 보인다"며 악을 놀렸지만 이번에도 여자는 무시했다.

여자가 육교에 다올라갔을 때 사내가 또다시 악을 올렸다.

"팬티 보인다"

그려자 고개를 흑 돌린 여자가 사내를 쏘아보면서 말했다.

"야!! 입지도 않은 팬티가 어떻게 보여?"

■도둑의 비법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물었다.

"저는 요 앞에 사는데 어제 저희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아 가셨죠?"

그려자 경찰은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 걱정스런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뇨, 그냥 그 도둑하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

"그건 곤란합니다.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네요."

그려자 그 남자가 말하길

"그게 아니고요. 전 단지 어떻게 마누라를 깨우지 않고 집에 들어왔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아무리 조심해도 매번 실패를 하거든요."

■나도 필요해

데이트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한 청년이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었지만 아무도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과 데이트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데이트 약속이 갑자기 생긴 것이어서 미리 데이트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리 저리 돈을 구하려고 했지만 마땅치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로 급히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데이트할 여자가 생겼으니 돈을 보내주세요.'

이에 아버지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바로 왔다.

'돈은 있으니. 여자를 보내라.'

■신신령도 남자?

못생긴 흉부 아내가 밥을 헛디뎌 호수에 빠졌다.

그러자 신신령이 미녀 셋을 데리고 나타나 흉부에 물었다.

"네 미누라가 맞느냐?"

"아닙니다. 제 미누라는 미녀가 아닙니다."

결국 착한 흉부는 아내와 미녀 셋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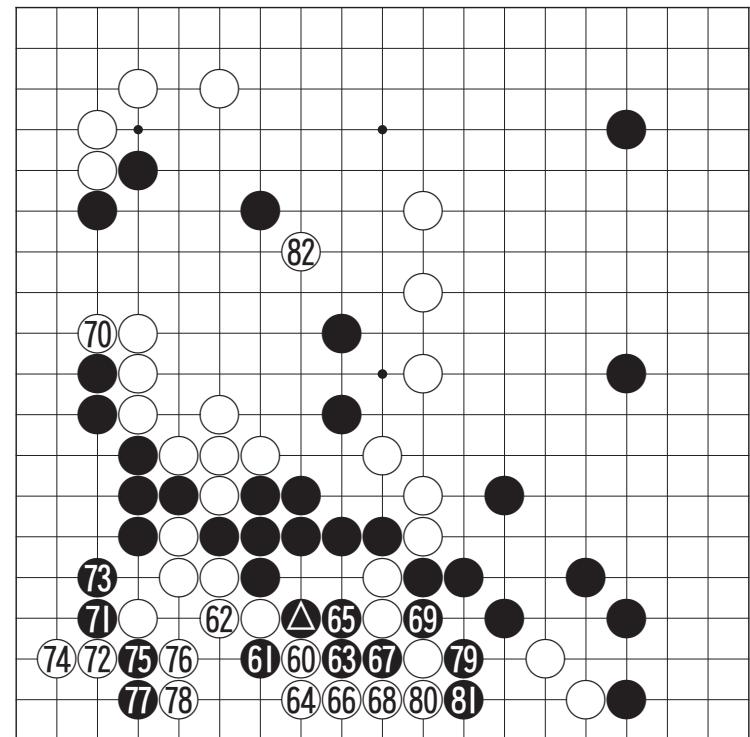
이 소문을 들은 놀부는 양귀비 같은 아내를 일부러 호수에 빠뜨렸다.

놀부는 신신령이 미녀 셋을 데리고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대성 통곡을 하였다.

한참 후, 신신령이 짬을 밟으며 나타나서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재빨리 물속으로 사라졌다.

"고맙다! 놀부야!"



제41기
KCTV
원위전 16강
白 윤찬희 초단 黑 목진석 9단

치열한 공방전 끝에 목진석 9단이 흑▲로 젖혀온 장면이다. 이 수로 인해 백은 산지사방으로 찢어져 매우 위험에 처한다. 그러나 윤찬희 초단은 새내기 답지 않게 백 60으로 젖혀온 황쪽한 모습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흑 61부터 69까지는 외길수순인데 다음 백 70으로 절호의 곳을 막아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괴동'으로 불렸던 목진석 9단도 힘으로는 전하장사급이다. 흑 71로 불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조훈현, 물가정보배 첫승

조훈현 9단이 7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한국물가정보배 B조 본선리그에서 진동규 3단을 200수 끝에 백 불계로 꺾고 리그 첫 승을 신고했다.

조 9단은 최근 LG배 세계기왕전 본선, 한국바둑리그 1라운드, 물가정보배 까지 모두 6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어 열린 C조 리그에서는 최철한 9단이 155수 만에 흑 불계로 윤성현 9단을 누르고 첫승을 올렸다. C조 리그는 현재 최철한 9단과 이영구 6단이 각각 1승씩을 거두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어 열린 D조 리그에서는 최철한 9단이 155수 만에 흑 불계로 윤성현 9단을 누르고 첫승을 올렸다. C조 리그는 현재 최철한 9단과 이영구 6단이 각각 1승씩을 거두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46년생 월드 월 듯한 구상만 있고 실력을 뇌기적이다. 58년생 낭설은 믿지 않고 직접 확인하고 자신이라. 70년생 대문 안과 밖을 살펴보면 실력을 예방한다. 82년생 가정의 안정이 있고 식구가 드는 갈사가 있다.

47년생 화는 많고 길한 일은 적으나 변화를 자제하라. 59년생 부부 사이의 길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보내라. 71년생 적은 돈의 소비가 있다. 83년생 역습을 당하는 형상이나 큰 불편한 일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4, 27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윤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899>

I wouldn't count on it
난 기대를 걸지 않을 거야

A: Do you think she will return my tape?

B: I wouldn't count on it.

A: I'm never loaning out my stuff again.

B: I don't blame you.

A: 넌 그녀가 내 테이프를 돌려 줄거라 생각하니?

B: 나는 기대를 걸지 않아.

A: 난 다시는 내 물건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B: 난 너를 탓하지 않아.

I wouldn't count on it
= I wouldn't bet on it

[반대 표현] You can bet on it (자연 믿어도 좋아)
I'm so mad at her(나는 그녀 때문에 너무 화가나)

(맞장구) I would be too (나라도 그럴 거야)

오하요우 니혼고 <899>

新(あたら)しいものを買(か)ったのよ
새것을 샀어요

A: お宅(たく)そだいゴミたくさん出(だ)してたけど、引(ひ)つ越(こ)してもするの?

B: そうじゃなくて。新(あたら)しいものを買(か)ったのよ。

A: そう。いいわね。うちにも定年退職(ていねんたいしょく)してたそだいゴミがあるんだけど。

B:まあ、それは出(だ)したくても出せないわね。

A: 집에서 대형쓰레기 많이 버리던데 이사라도 합니까.

B: 그게 아니고, 새것을 샀어요.

A: 그래요. 좋겠군요. 우리도 정년 퇴직한 남편이 있는데.

B: 이런~, 그것은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것이지요!

出(だ)す: 내다, 버리다

そだいゴミ: 정년 퇴직해서 취미도 없이 하루종일 집안에서 가사에 쓰기는 부인을 귀찮게 하는 남편을 そだいゴミ라한다

引(ひ)つ越(こ)し: 이사

니하오 총구워 <90>

她不肯说
그녀는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A: 捡了你钱包的好心人叫什么名字?

Jiǎn le nǐ qiánbāo de hǎoxīnrén jiào shénme míngzì?

지엔 러 니 치엔 뉴오 더 하오신르신 찐아오 션밍쯔즈?

B: 我问了, 她不肯说。

Wǒ wèn le, tā bù kěshuō.

워 우언 러, 타 뿐크언 쿠워.

A: 她怎么知道钱包是你的?

Tā zěnmé zhǐdào qiánbāo shì nǐ de?